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통일 위해 관료들이 '정밀기계' 역할 해야"

김명성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입력 : 2015.12.04 03:00

박태준미래전략硏 포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제도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행정 관료들이 독일 관료들 처럼 '정밀 기계장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오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관료들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3일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 주최로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열린 '바람직한 한국 관료 생성 메커니즘' 포럼에서 "남북한 이질성 극대화는 통일 과정의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내적 통합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행정 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 북통일의 법적인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헌정 통합과 제도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 나선 엄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독일은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 등 정부 조직들이 통일 직후 조직 개편을 단행해 구동독 지역의 재건과 관련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자문 역할을 했다"며 "우리 정부도 통일 과정 준비에 맞춰 행정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무능이 부패보다 사회적 비용 크다… 공직에 파트타임직 대폭 확대해야”

박태준미래전략연구원 ‘바람직한 행정관료’ 포럼서 쓴소리

입력 2015-12-03 21:31

“무능이 부패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공직에 파트타임 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작 정부는 행정관료를 잘 모른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3일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행정관료와 조직에 대한 쓴소리들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전문성 부재의 참담한 행정 생태의 결정판이었다”며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과장급 이상 행정관료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2개월이며, 공무원 절반이 1년 내에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 순환보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존재이유와 가치, 1973년 만들어진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파트타임 공무원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파트타임 공직 수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제인구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파트타임 고용 형태를 공직사회에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설립됐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등을 연구해 왔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포럼...관료 혁신방안 모색

• 기사입력 2015/12/03 13:00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 분위기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고 포스코가 밝혔다.

조운제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 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채용 때 문제 해결형 면접 활용, 민간 경력자 제도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 가지 트랙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1년 별세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설립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한·중·일 공존공영 방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조망해 왔다.

co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03 13: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사회 관료 전문성 부족이 불신 자초”

박태준미래전략연구원 포럼

무능 폐해가 부패보다 커

폐쇄적 임용방식 고치고

형식적 교육훈련 바꿔야

2015년 12월 04일 (금)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한국사회에 팽배한 ‘관료 불신’은 공직계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개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과 폐쇄적 임용제도 등 고질적 문제들을 혁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해법이 제시됐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는 3일 오후 3시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대한민국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의 후원으로 2015년 미래전략포럼 ‘바람직한 한국 관료 생성 메커니즘’을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연구소가 기획한 주제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연구해온 교수 3인의 발제에 전문가 3명이 1대1 개별토론한 뒤 이를 경청한 학자들의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운제 교수(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의 발제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에 대한 토론은 박순애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발제 ‘한국 행정 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에 대한 토론은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가,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발제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첫번째 발제에서 박길성 교수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고 “오늘날 한국 행정관료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의 결여와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요원인으로 “순환보직, 폐쇄적 임용, 형식에 그치는 교육훈련”을 꼽고 “집체식으로 반복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혁신, 1973년에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다층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거시 혁신과 미시 혁신을 동시에 이끌어 나갈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행정관료에 대한 부당하고 편향된 시선에 대해 행정관료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행정관료 리포트’의 주기적 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종수 교수는 올해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정부의 전·현직 국장 4인, 현직 교수 3인, 그리고 합격자 6인에 대한 심층면접에 근거해 “5급 공채시험의 3차 면접시험부터 당장 혁신해야 한다”며 총원의 개선방안부터 강하게 요구했다. 이 교수는 또 “면접을 개선한 5급 공채, 민간 경력자 채용 도입, 대학의 전공과 적성을 그대로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갈 것을 제시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정창화 교수는 독일통일과정에서 행정관료들이 내적통합에 기여하는 ‘정밀기계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인 이대환 작가는 “미래전략연구에는 거대담론적인 것과 실사구시적인 것이 있는데, 연구소는 우선 후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수행한 ‘선진국가들의 행정·정치·기업 엘리트 생성 메커니즘’의 후속으로 올해 ‘한국 행정 관료제 개선 방안’과 ‘통일과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전문 관료 양성하고 민간 경력자 늘려야”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포럼...관료 혁신방안 모색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한국 행정관료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 분야를 오랜 기간 맡겨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경력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포스코에 따르면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는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 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 채용 때 문제 해결형 면접 활용, 민간 경력자 제도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 기계장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1년 별세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기리기 위해 2013년 설립됐으며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 성장모델과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한·중·일 공존공영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15-12-03 16:20:56

바람직한 행정관료 만들기 포럼, 박태준미래전략연구원 주최

기사입력 2015.12.03 14:21:00 | 최종수정 2015.12.03 14:21:00 | 황의준 | innovation@newdaily.co.kr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산 메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박태준미래전략연구원에서 기획됐다.

포럼에서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집권적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연세대)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의준 (innovation@newdaily.co.kr)

Copyright ©2013 NewDaily Biz Corp. All rights reserved.

머니투데이

박태준연구소, '바람직한 한국관료' 조건 포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입력 : 2015.12.03 16:01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관료를 불신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 대학원장은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관료의 무능이 부패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체식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정창화 단국대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관료들이 독일처럼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축사에서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를 조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 채명석 기자
- (oricms@ajunews.com)
- | 등록 : 2015-12-03 01:00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포럼에는 조운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단국대학교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을 후원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최종수정 2015-12-03 17:45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 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 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단국대학교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 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 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김희진 기자 heejin@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뉴스웨이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2015-12-03 15:32



고 박태준 명예회장.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서강대학교 조운제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은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 포럼 개최

2015-12-03 16:16

[뉴스핌=김신정 기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 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 제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 위한 포럼 개최
한국 관료의 혁신·개편 및 새로운 역할 등 주제로 토론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 2015-12-03 14:26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서강대학교 조운제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은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홈 > 뉴스 > 뉴스 > 업계소식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관료의 모습은?"

3일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한국 관료의 혁신·개편 및 새로운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

2015년 12월 03일 (목) 11:51:16

방정환 jhbang@snmnews.com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서강대학교 조윤제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은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차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제를 위한 포럼 개최

기사입력 2015.12.03 13:53:40 | 최종수정 2015.12.03 13:53:40 | 전수영 | jun6182@naver.com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학교 대학원장은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함께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 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정장화 단국대학교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세워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하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전수영 (jun6182@naver.com)

Copyright @2000~2015 POLINEWS. All rights reserved.

박태준미래전략연구,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입력시간 | 2015.12.03 13:28 | 정태선 기자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 제시

韓 관료 혁신·개편..새로운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강대학교 조윤제 교수(경제학)가 진행을 맡은 포럼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국 관료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집체식의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연세대학교)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루며 "공무원 채용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창화 교수(단국대)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내적통합을 위한 '정밀기계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3년 설립됐다.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를 조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 홈 > 뉴스 > 산업

박태준미래전략연구, '바람직한 한국 관료 위한 포럼' 개최

2015년 12월 03일 (목) 17:44:52

황준익 기자 ✉️joon220@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 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관료 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 포럼을 개최했다.

조운제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은 포럼에서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다뤘다.

박 교수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집체식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의 보직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수 연세대학교 교수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주제로 공무원 채용 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 가지 트랙을 제시했다.

정창화 단국대학교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했다.

포럼을 후원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 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 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 및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박태준 연구소, '관료불신 해소' 위한 포럼 개최

안태호 기자 입력 : 2015.12.03 14:59 | 수정 : 2015.12.03 14:59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메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세 차례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한국 행정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무능의 사회적 비용은 부패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관료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집체식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순환보직과 더불어 장기재직 전문가를 양성하는 두 갈래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한국 행정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을 다뤘다.

이 교수는 "공무원 채용 시 문제해결형 면접, 민간 경력자 도입, 대학 전공과 적성을 살리는 채용 등 3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나선 정창화 동국대 교수는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행정관료들이 내적통합의 '정밀기계장치'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2013년 설립 됐으며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상매일신문

바람직한 관료의 모습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포럼 개최

신동선 기자 ipda75@naver.com | 입력 : 2015년 12월 04일(금) 00:33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간연구소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미래전략포럼'이 열렸다.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소장 최광웅)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의 후원으로 2015년 미래전략포럼 '바람직한 한국 관료 생성 메커니즘'을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기획한 관련 주제에 대해 지난 10개월간 연구해온 교수 3인이 발제하고 전문가 3명이 토론한 후 발제와 토론을 경청한 다수 학자들이 종합토론에 나서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윤제 교수(서강대학교 교수, 경제학)가 좌장을 맡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했다.

박길성 교수(고려대 대학원장, 사회학)의 발제 '한국 행정 관료의 전문성과 혁신'에 대한 토론은 박순애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종수 교수(연세대 행정학과)의 발제 '한국 행정 관료의 충원과 고용방식 개편'에 대한 토론은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그리고 정창화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발제 '통일과정에서 한국 행정관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은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포럼을 후원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축사를 통해 "공직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url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89&idx=123307

Copyrights ©경상매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Consumer News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바람직한 한국 관료를 위한 포럼 개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3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관료 불신’의 원인을 찾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기 위해 ‘바람직한 한국 행정관료 생성 매커니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후원한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사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시도했던 많은 변화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는 경쟁력있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는 미래사회 모습과 실현방안,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모델,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 및 한·중·일 3국과 공존공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미래 핵심문제 조망과 대응방향을 제시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